

# '40조+α' 자구책에 사장사의...전기·가스요금 이번주 오를까

## 한전·가스공 사상 최대 규모 재무개선 계획 오늘 당정서 요금인상 논의...최종안 관심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총 40조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한 가운데 15일 당정서 열린다. 이에 한 달 반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이번주에는 인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폭을 논의한다. 지난 11일 요금 관련 당정이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취소된 바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전 사장이 사퇴까지 밝힌 만큼, 오는 15일 당정에서는 요금 인상 폭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일 발표된 에너지공기업의 자구안에는 전직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과 '알짜 부동산'인 한전 남서울본부 매각 등 사실상 실현가능한 모든 재무개선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정 사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전기요금 적기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의 1분기 실적 발표된 직후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전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등으로 1분기 6조 177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 규모는 개선됐지만, 여전

히 손실이 계속되면서 적자가 38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가스공사도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두자릿수 비율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민수용 미수금은 3개월 만에 3조원 불어나며 총 11조6000억원이 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가스요금 현

실화를 호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당정이 열린 뒤 인상안이 즉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2원 넘게 올려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여당 간 인상폭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에서 조율을 최종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당정 협의회에서 인상안이 최종 마련되면 전기위원회 일정이 곧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다. 김재환기자



## “너도나도 일본으로” 인기 해외여행지 1위에

최근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 기 대감이 커지면서 '노재팬(No Japan)'이 종료되고 '예스 재팬(Yes Japan)'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노재팬'은 일본여행 및 상품 불매운동을 말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점화했다.

하지만 이제는 '노재팬'이란 말이 무색하게 국내 소비자들은 다시 일본산 맥주를 찾고, 유통 업계에서는 일본 관련 마케팅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행업계에도 예스재팬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찾는 1순위 여행지도 일본이 압도적이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208만2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4위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합친 수(202만8935명)보다 많은 수치다.

일본 여행 열풍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2년7개월여 만에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시작했다. 여기에 역대급 엔화 약세 이른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급속히 증가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2019년 노재팬에서 팬데믹까지 이어지며 상당 기간 일본여행 수요가 억눌려왔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일본이 해외여행을 재개하자 억눌려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리상 가깝기도 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여행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 소도시로 가는 항공편 등이 증가하면 일본을 찾는 국내 여행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여행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티몬이 이번달 1~14일 출발하는 해외 자유여행 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착지 1위는 일본 오사카였다. 2위는 도쿄 3위는 후쿠오카로 1~3위를 모두 일본이 차지했다.

하나투어의 전체 해외여행 예약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분기 7.3%, 4분기 31.3%, 2023년 1분기 33.8%로 증가했다.

하나투어의 지난해 4분기 일본여행 예약 건수는 직전 분기보다 903% 증가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직전 분기보다 247% 상승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이후로도 일본 여행 예약은 꾸준한 상황"이라며 "오키나와,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내 소도시에 항공 좌석 공급이 증가하면서 예약 또한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가 이달 8일부터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사나 72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 등 공항 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일본 여행이 한층 수월해져, 일본 여행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선욱기자

## '치약계 에르메스 佛 르봉' 국내 데뷔...온누리스토어

프랑스 치약 '르봉'(LEBON)을 최근 온누리스토어 공식 온라인 몰에서 선보였다.

르봉은 차별화된 성분, 향기, 미백 효과, 고급스러운 패키지 덕에 '치약계 에르메스' '명품 치약' 등으로 통한다.

2015년 창립자인 과학자 남편과 조향사 부인이 전 세계 수많은 유명 향수의 발상지인 남프랑스 그라스 지방 향료를 사용해 '입안의 향수'를 구현했다. 론칭 이후 '엘르' '보그' 등 유명 패션지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 르봉 마르쉐, 사마리 등 프랑스 유명 백화점에서 치약 판매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치약은 불소와 파라벤을 배제하고, 녹차 추출물, 알로에 베라 등 비건 인증 성분만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치아 착색증과 플라크를 동시에 제거하는 '듀얼 솔루션'으로 미백 효과를 강화했다. 그러면서도 미백 치약 특유의 역한 향을 없애 편안한 양치 경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르 화이트' '카프페라 무드' '피어리스 프리덤' '스위트 엑스트라 버전스' 등 4종이 있다.

### 착색증·플라크 동시 제거...미백 강화



각기 맛과 향이 다르다. 온누리스토어 관계자는 "프랑스를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 사이에 '프랑스 대표 약국인 몽주 약국에서 반드시 사야 할 아이템'으로 꼽히는 르봉 치약을 국내에 독점 소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가격대가 일반 치약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강과 위생에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심비족'에게 특히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31일까지 2~4개 묶음 구매 고객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슬비기자

## 삼성전자, 국내 에어컨 시장점유율 50% 돌파 눈앞

### 무풍 에어컨 판매 2배 늘어

삼성전자가 무풍 에어컨 등의 인기를 앞세워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 50% 돌파를 눈앞에 뒀다.

14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점유율은 48.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2013년 43.6%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2016년 42.7% ▲2017년 45.5% ▲2018년 43.0% ▲2019년 37.6% ▲2020년 40.4% ▲2021년 41.7% ▲2022년 41.0% 등 꾸준히 40%대 점유율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무풍 에어컨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며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전 제품 구매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모델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무풍 에어컨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탠드형, 벽걸이형,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에 이어 지난달엔 창문형 에어컨 최초로 무풍 냉방 기능을 도입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윈도유핏'도 출시해 전체 에어컨 라



인업을 무풍으로 완성했다.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 제품이며, 가정용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 창문형 에어컨 무풍 에어컨 윈도유핏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무풍 에어컨 갤러리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10% 냉방 효율이 더

높은 에너지 특화 모델도 출시했다. 삼성전자 무풍에어컨은 무풍 냉방 사용 시 최대(MAX) 냉방 대비 최대 90% 소비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할 수 있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이슬기자

## 아영FBC, 샴페인 '레어' 2013 빈티지 출시



종합주류기업 아영FBC가 독점 수입하는 샴

페인 '레어'가 2013 빈티지 샴페인을 13일 국내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레어 2013 빈티지 샴페인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1976 빈티지 샴페인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단 13개 빈티지 만을 빈티지 샴페인으로 선정해 매우 희귀하다.

레어 2013 빈티지 샴페인은 샤프도네(70%)와 피노누아(30%)를 사용했다. 그린티, 시트러스, 금귤과 흰꽃의 향기로 시작된 샴페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꽃 향기와 스파이시함이 뚜렷해지고, 향긋하지만 스모키 한 대조적인 느낌의 향이 매우 잘 어우러져 있다. 뉴시스

## "석유냄새 줄이고, 산뜻하게"...세스코 모기약

종합 환경 위생기업 세스코는 수성(水性)으로 석유 냄새와 미끈거림을 줄인 산뜻한 사용감의 모기 살충제 '세스코 마이클 모기 에어로솔 위티베이스'를 12일 출시했다.

이 살충제는 프랄레트린 등 모기 퇴치에 효과적인 성분을 담았다. 1회 5초간 분사해 3평

크기의 방 안 모기와 파리를 빠르고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모기 살충제는 무향이다. 캠핑과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휴대하기 편한 330ml와 집과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500ml 용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

